

실사구시 불교학 지향 응용불교 전문지

불광연구원 <전법학 연구> 창간...연2회 발간

전법·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열고 정법 흥포를 위한 실사구시의 불교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지가 창간을 앞두고 있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바를 탐구하고 불교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지 <전법학 연구> 1월 30일 창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책은 전통 불교학이 주로 담당했던 교리 사상 역사 문헌학 등 학문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조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불교학을 개척하게 된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창간사에서 “그동안 우리 불교학계의 주류는 학문을 위한 학문, 교리를 위한 불교학에 치중해 ‘지극 여기’의 한국불교 문제를 연구·토론하는 불교학이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학문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광덕 스님의 전법행을 계승해 오늘 여기서 불교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해 바른 길을 모색하고자 전법·포교에 초점을 맞춘 실사구시의 불교학을 열어가기 위한 <전법학 연구>를 창간한다”고 밝혔다.

불광연구원은 2010년 7월 개원해 1년 6개월 여 동안 12차례 걸쳐 ‘광덕 스님 사상 연구’ ‘대만불교 연구’ ‘한국불교의 생태운동’ ‘불사의 현대적 의미’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연찬회를 개최해 왔다. 이 과정에서 40여 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고, 이 논문들은 <전법학 연구>를 펴내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책은 매년 1월 30일·7월 30일 매년 2회씩 발간될 예정이다. 책에는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 발표 논문뿐만 아니라 창간 목표로 부합하는 논문도 투고 받아 실사를 거쳐 게재된다.

지홍 스님은 “<전법학 연구>는 전법과 포교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해 한국 불교학계에 ‘전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전법학 연구>의 내용을 심의하고 편집 방향을 논의할 편집위원회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연구교수, 이도훈 한양대 교수, 조명제 신라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로 구성됐다. 초대 편집위원장은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전법학 연구> 제1집에는 광덕 스님의 사상연구·대만불교 연구·전법학 연구 등 14편의 논문이 게재된다.

‘광덕 스님의 사상연구’ 장에는 >광덕



2010년 7월 10일 불광연구원 개원 법회에서 이사장 지홍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님은 광덕 스님의 큰 뜻을 오늘에 구현코자 불광연구원 개원에 이어 학술지 <전법학 연구>를 펴낸다.

스님 사상의 개표(김성근 동국대 명예교수) >광덕 스님의 삶과 불광사상(김재영 청보리회 법사)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과 시대적 의미(이중수 동국대 HK연구교수) >순수불교 운동의 의미와 방향(석길암 금강대 HK연구교수, 이도훈 한양대 교수, 조명제 신라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로 구성됐다. 초대 편집위원장은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전법학 연구> 제1집에는 광덕 스님의 사상연구·대만불교 연구·전법학 연구 등 14편의 논문이 게재된다. ‘전법학 연구’ 장에는 >전법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박경준 동국대 교수) >고파마 붓다의 전법행과 교화방편(유성욱 BK21) >불사의 교리적 연원과 그 해석(태경 스님·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사) >원불과 천불조성의 연원과 현대적 의의(금강대 연구교수) >서양윤리의 동물권리 논의와 불교생명윤리의 입장(허남결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의 생명살림운동의 역사와 미래(유정길 예교부터 대표)가 수록된다.

한편, 불광연구원은 <전법학 연구> 창간봉정을 광덕 스님의 열반 제13주기일에 맞춰 2월 3일 불광사에서 봉행한다. 봉정식 후에는 책을 전국 주요 불교기관, 불교학자, 불교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最古 금속활자 직지 최초 복원

청주고인쇄박물관 1차년도 복원 보고회서 5천자 공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의 활자 경판이 600여 년 만에 최초로 복원됐다.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반재홍)은 1월 17일 괴산 연풍 소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임인호의 활자주조 작업실에서 ‘2011 직지 금속활자 복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물관은 복원한 금속활자본 13장과 목판본 6장을 공개했다.

박물관은 2011~2015년 문화재청과 충청북도로부터 18억원을 지원 받아 <직지> 금속활자본(상·하권)과 목판본(하권)을 복원하고 있다. 이번에 복원한 글자는 ‘직지’ 금속활자 2만9000여 자(字) 가운데 6분의1인 5000여 글자로 <직지> 금속활자본(하) 13장과 목판본 6장 등이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이번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인 임인호씨가 맡았다. 목판 복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인 각자장 전수조교 김각한씨가 담당

했다. 서지학자인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복원 작업은 밀랍주조법 가운데 100여 자 이상을 주조하는 다량(多量) 주조방식이 사용됐다.

박물관은 이번에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 78장에 이어 2015년까지 상·하권과 목판본 하권을 연차적으로 복원한다. 금속활자 실물복원 이외에 고려시대 인쇄기술을 정리하는 연구보고서도 매년 간행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해 사용한 한국 인쇄술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이번에 복원되는 활자들은 <직지>와 더불어 한국의 훌륭한 인쇄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적인 자료이다.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성공적인 복원과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을 통해 청주를 직지의 도시로 특성화해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권으로 간행됐다. 현재 하권 1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조동섭 기자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임인호 씨(맨 왼쪽)의 작업실에서 2011 직지금속활자복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고, 복원한 5000여 자를 공개했다.

문화유산콘텐츠 지도로 만난다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확대 개편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고려...문화재 규제 정보 등 한눈에

인터넷을 통해 지도에서 문화유산콘텐츠와 건설공사 예정지역의 문화재 규제정보 확인이 가능해 졌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이 같은 서비스를 골자로 한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eritage GIS)를 1월 16일~2월 29일 시범서비스 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단장한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는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해 포털사이트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고, 편리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 나들이’ 지도와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를 새롭게 구축했다.

‘문화유산 나들이’는 문화재 검색과 동시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관련 콘텐츠

를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국가문화유산포털, 헤리티지 채널, 문화유산연구 지식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문화유산 이야기, 동영상, 사진, 전문지식을 지도기반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화재 정보를 지도에서 검색·조회 가능하며, 건설공사 예정지역의 상세한 지형·매장문화재 규제정보를 볼 수 있다. 또, 기존 지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정보를 제공하며,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도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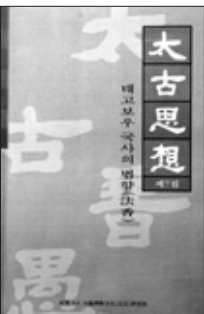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이 지도서비스는 문화재 규제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건설 예정지역의 문화재 훼손과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is-heritage.go.kr

조동섭 기자



‘태고사상’ 제7집 발간



대원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은 최근 <태고사상> 제7집을 펴냈다.

‘태고보우 국사의 범향’을 주제로 발간된 이번 논문집에는 >이사장 무공 스님의 기조문 ‘태고 조사의 불조정통 범향상승과 불교 중흥이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법원 스님(前 태고종 총무원장)의 ‘태고 선사의 상승법맥 연구-권상로의 고조파(古祖派) 주장 중심으로’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서산의 선풍(禪風)과 그 범통문제’ >최성렬 조선대 교수의 ‘간화선법의 수용이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 >해성 스님(덕수사 주지)의 ‘현대 한국불교와 간화선’ 등이 수록됐다. (02)747-8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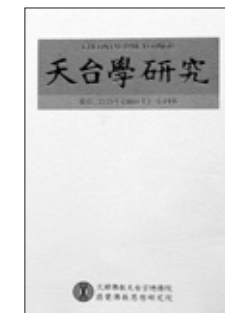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천태학연구’ 제14집 발간

천태종(총무원장대행 무원)과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최근 <천태학연구>제14집을 발간했다.

책에는 지난해 천태불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염불신앙의 연원과 전개(김상현 동국대 교수)’ ‘미타염불과 관음연불의 동이점(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대중불교와 염불신앙(김용표 동국대 교수)’가 게재됐다.

또, 제4차 한중포럼에서 발표된 ‘사회발전과 사찰교육(송리파오 중국불교문화연구소)’ ‘불타와 교육(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새로운 시기의 사찰 교육(쉬원필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한국천태종의 교육이념과 교육현황(김세운 천태종 교육부장)’ ‘낙양 백마사 불교교육



의 현황과 전망(쉬진성 하남성 문사연구원 관원)’ ‘불교의 신도 교육과 사회발전(김상현 동국대 교수)’ ‘당나라 불교교육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귀사오린 낙양

사범학교 교수)’ ‘현대사회에서의 승가의 역할과 승려 교육(최종석 금강대 교수)’가 실렸다. 또, ‘정명국사 천인의 사상과 수행(라정숙 숙명여대 외래교수)’ ‘신라 선덕여왕의 알성신화 재편과 첨성대(조경철 연세대 외래교수) 등 공모논문도 게재됐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

원로회
원로회장 은파
원로원 성파, 원파, 동파, 정공, 정봉, 진파

총무원
총문회장 근파 부회장 농파, 선파
총무부장 능산 재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묵암 사회부장 만산
문화부장 자관 의전부장 덕산 기획부장 등암

교육원
불곡사 승가교육원장 영파 불모산 영산재보존회장 한파 본사 불곡사 주지 서암

감사원
감사원장 영산 감사위원 거산

법인이사회
이사장 근파 이사 은파, 원파, 농파, 영파, 정봉 감사 능산, 서암

우담종문회 일동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036번지 / 전화 055)282-7402

2012 임진년 壬辰年

가피

가피(加被)란 부처님께서 자비(慈悲)를 베풀어 중생들에게 힘을 주시는 뜻입니다.

이 임진년 한 해에도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